

## 보라!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로다

‘보라!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로다’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본문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 :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태복음 14 :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 : 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복음 14 :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X-Ref 마 6:47-51

마태복음 14 : 26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마태복음 14 : 27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 :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오라 하소서 한대

마태복음 14 :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마태복음 14 :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4 :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 :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복음 14 :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세계는 경제 불안으로 얼어 붙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의 한파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과 마음 까지 얼어 붙게 만듭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대로, 고용을 당한 사람은 고용을 당한 사람대로 불안으로 잠을 설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런 영원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시처방이 아닌 영원한, 영원히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해결책을 논함에 있어서,

1.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2. 염려와 근심의 궁극적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3.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선 자가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4.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5. 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속사람으로 사는 길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영원히 자유와 평강이 계속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풍랑이 자기를 삼킬듯 달려 들어도, 파도 위에 올라 앉아 파도를 다스립니다. 홍수를 타고 오시는 여호와를 보고 있는 사람에겐 염려와 근심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있습니까? 먼 훗날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내가 주는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또 너희를 주신 자는 내 아버지이시니 내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말씀은 은 모두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보라!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로다” 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던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 인생 살이의 모든 문제로 인한 염려 근심과는 영원히 안녕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오는 것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도, 파도를 대하는 마음 자세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 문제로 인한 염려 근심은 영원히 안녕할 수 있습니다. 임시가 아닙니다. 영원한 안녕입니다.

## II. 염려 근심의 궁극적 원인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 : 26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마태복음 14 : 27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 :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오라 하소서 한대

마태복음 14 :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마태복음 14 :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4 :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 :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은 물위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 보니 두려워 물에 빠진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

파도 위에 올라 앉자 파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파도가 무서워 파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은 환경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워 하면 물에 빠질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나의 마음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하면서 아직도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염려 근심을 아직 하고 있다면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에 빠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의 결과는 물속에 빠지는 것 뿐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의해서 물속에 빠지는 것외엔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로 인한 염려 근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파도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자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홍수 위에 올라 앉아서도 환경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홍수의 포로가 되어 염려 근심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위에 올라 앉아 홍수를 다스리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두려워 떠는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환경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부터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홍수위에서도 홍수위에 좌정하신 여호와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홍수가 아닌 자기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파도 위에 서서 파도를 다스리기 위해선 먼저 환경이 아닌, 자기자신을 자기가 다스리는 일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III. 자기 를 다스리는 것이 해결책이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다스리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부인! 이것이 영원한 해결책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 :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 :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기본 원리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도 자기 부인을 하라는 말입니다.

다음 모세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닷가로 나아가라” 이것도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앞세워,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합니까?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자기 생각이  
앞서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적으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을 하기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정신에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눈 앞에 파도가 아른 거리는데, 기도를 해보려고 앉아 보십시오. 눈 앞에 파도가 아른 거려서 기도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기도 후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파도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파도가 없어진 것 아닙니다. 어제처럼 파도가 그대로 있어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두렵던 파도가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발등에 불이 붙어 있는데 자기 부인부터 하라니요? 앉아서 기도부터 하라니요? 그것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홍수 위에 앉아계신 여호와를 보지 않고 자기만 보고 있습니다.

#### IV.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절대적 안식, 절대적 평안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환경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기를 지배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오직 한길 뿐이 없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 놓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평안이 올 때까지, 자기가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올 때 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해결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 :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기도의 비법입니다.

이 말씀은 파도 위에 올라 앉아 있지만, 홍수 위에 올라 앉아 있지만, 파도야 물러가라 홍수야 물러 가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시 처방만을 항상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문제의 원인은 해결하려 하지 않고, 환경 문제의 해결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도야 물러 가라, 홍수야 물러 가라!

그렇지만 인생 살이에 문제가 하나 둘입니까?.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인간간의 문제, 닥쳐오는 문제가 하나 둘입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문제의 해결에만 주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사람은 일평생 염려 근심을 옷처럼 입고 삽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가 두려워 떨니다. 이런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인가 문제 앞에 주저앉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것이 전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누려야 할 사람의 평화와 기쁨 안정이 이런 것입니까?

파도는 홍수는 하나님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충만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왕으로 여러분을 지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엔 염려와 걱정 대신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천지가 찰흙처럼 어둡고,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먼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한 신앙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과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배와 평안이 항상 있기를 꾸준히 기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 13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앞에서 행한다고 하며, 시편 89편 14절에서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십니다. 물질을 더하여 주십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가 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 :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마가복음 10 : 30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꺾박을 곁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천지가 캄캄하고 다 막힌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을 다 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얻기 위해 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믿음과 평안의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부인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강건한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 V. 속사람으로 사는 길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외부의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 환경이 무어라 하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강력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도위에 올라 앉아 있어도, 그 두렵던 파도가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 장 승리의 장에서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환경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8 :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 : 36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 :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 :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로마서 8 :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수 없으리라

불경기, 금융공황, 까짓 것 올테면 와봐라!

어떤 문제라도 올테면 와봐라 하면서 어깨를 쭉 펴고 나갑니다.

로마서 8 :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 : 37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 :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로마서 8 :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세상에서 누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걱정 근심과 영원히 안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 있으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이 계속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 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와 쌓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부인은 기도하라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과 한치의 차이도 없으며,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지배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려, 능력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님의이름으로 기원합니다.